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6. 1920년대 미술

금세기 초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유럽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표현주의의 메시아적인 유토피아관은 전쟁 중과 그 후 그 색깔을 변해 발전하거나 그에 대한 거센 반대운동을 낳게 함. "낡은 유럽"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위생학"으로 환호하였던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에 실망한 젊은이들은 전쟁 후 한편으로는 다다운동을 통해서 표현주의가 찬미했던 인간과 그가 만들어 낸 가치척도 전체를 부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인간 내면을 묘사하는데 사용하였던 격렬한 붓질을 전후의 사회를 비판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거나, 내면을 향했던 눈과 걱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한(sober, nüchtern) 눈으로 전쟁 후의 세계를 관찰하고, 그것을 개성을 억누른 붓질로 표현. 표현주의자들의 메시아적인 유토피아관은, 이를테면 전쟁 직후(1919)에 건립된 바우하우스나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활약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합리주의적 이상과 결합되기도 함. 그러나 전후 표현주의 미술의 기본 특징들은 — 무아경의 격한 몸짓, 시끄러움, 감정의 폭발, 형태의 파괴, 조형 상 객관성의 무시, 현재 보다는 시·공간상 먼 곳에 대한 관심 등 — 무엇보다 1920년대에 두드러진 경향으로 대두된 "새로운 자연주의적인" 미술들에 의해서 거부됨. 이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 추구했던 추상 경향이 거부했던 미술 태도, 즉 대상을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는 경향이 다시 부상하게 됨. 도상해석학 방식의 미술사가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892~1968)는 "특정의 예술적인 문제들에 관한 작업이 - 처음에 상정했던 전제로부터 - 같은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거대한 격세유전들이나 또는 더 낫게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씀. 1920년대에 부상한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 경향의 미술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이지만 이전의 형상적 미술의 전통을 그대로 회복시킨 것은 아님. 이러한 의미에서 1923년부터 Mannheim의 Kunsthalle 관장을 역임한 Gustav Friedrich Hartlaub은 191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위 미술 경향을 1922년에 "새로운 자연주의"라고 부름.

"대상성으로의 회귀"나 "질서로의 복귀"로 불리는 이 형상적인 미술은 193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국가들, 나아가서는 미국과 멕시코 같은 대서양 건너의 나라들에서도 유행하면서, 양차 대전 사이에 주요 미술 양식이 됨. 회화는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세계의 거울"이 됨. 그러나 이 미술 경향은 그것이 과거로 "역행"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식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체주의의 관영미술인 감각적인 고전주의적 미술과 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의 형성에 편리를 제공한 점 때문에 모더니즘 중심의 미술사 기술에서 절대적으로 경시됨.

회화를 중심으로 양차 대전 사이 주류를 이루었던 형상적인 미술은 하나의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또 나라마다 현실에 대한 입장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 모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실주의 경향은 아님. 그러나 유럽의 이 미술은 무엇보다 Giotto(1266~1337), quattrocento(1400년대)의 미술, Albrecht Altdorfer(1480~1538), Matthias Grünewald(1460~80)와 Albrecht Dürer(1471~1528)와 같은 독일 초기 르네상

스 화가에게 경도되었음. 독일과 미국의 미술가들에게서는 Honoré Daumier, Gustave Courbet, Wilhelm Leibl 등의 영향이 보임. 사물의 물질적 특징을 부활시킨 이 미술은 독일에서는 Neue Sachlichkeit(노이에 자흐리히 카이트; 신즉물성, 신즉물주의)라는 명칭으로 불림. Otto Dix, George Grosz, Christian Schad, Rudolf Schlichter, Otto Griebel 등의 화가와 사진가 August Sander가 대표적임. 특히 이 미술 경향이 현저했던 독일이 표현주의 운동의 주 무대이자 1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사실은 신즉물주의의 등장의 필연성과 그 성격을 시사함. 이 미술 경향은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에는 Pittura metafisica(형이상학적 회화), 1918년 이후에는 Valori Plastici(조형적 가치)나 Novecento(20세기)로 불렸고 de Chirico, Carlo Carrà 등이 대표적인 화가. 프랑스에서는 피카소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 미술경향은 신고전주의적임. 이 미술은 미국에서는 자연주의적으로 미국의 인물이나 풍경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 미국 장면 회화(American Scene Painting)으로 불림. 이 명칭 속에는 미국의 시골, 특히 서부 풍경을 민족적 자존심으로 채색한 Thomas Hart Benton과 Grant Wood가 대표적인 Regionalism(지방주의), 산업화에 대한 낙관주의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 Edward Hopper, 도시, 공장 등을 수정처럼 투명하게 묘사한 Charles Sheeler와 Charles Demuth의 Precisionism(정확주의) 등이 포함됨. 1930년대, 특히 대공황시기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노동자의 현실을 통해 보여준 사회비판적인 미술 경향은 Social Realism으로 불리며, 이 경향을 대표하는 Philip Evergood, Ben Shan 등이 있음. 따라서 Social Realism을 스타일린이 1928년부터 관영미술로 요구한 미술경향을 1932년부터 칭하게 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와 혼동하면 안됨.

신즉물주의라는 용어는 1923년 Gustav Friedrich Hartlaub이 1920년대 회화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 전 해에 이런 경향을 새로운 자연주의라고 칭했던 그는 이 미술을 신즉물주의라고 칭하고, 미술가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전시를 준비해 1925년 만하임의 쿤스트할레에서 <신즉물주의, 표현주의 이후의 독일 회화>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 같은 해 로오(Franz Roh)는 당시의 주된 미술 흐름의 특징들을 표현주의의 그것들과 대비시키면서 정리를 시도한 책의 제목을 <표현주의 이후 - 불가사의한 사실주의>라고 칭함. 하르트라우프는 신즉물주의를 그것의 사회비판적인 의도나 효과의 무, 유에 따라 '우익'과 '좌익'으로 세분화함. '현실로부터 사상적으로 도피한'(Georg Lukacz) 표현주의자들과는 반대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미술이 당시 사회의 거울이 되기를 원하는 좌익은 20년대부터 진실주의(Verismus)로 불리기도 하며, 미국의 Social Realism과 의식면에서 공통점을 지님. 그러나 1970년대 막스주의적 미술과 문학비평가들은 신즉물주의 전체에 사회비판이 결여되었다고 봄. 예를 들어 레텐(Helmut Lethen)은 신즉물주의가 '사회 현실을 꾸미지 않고 재생산'한다고 보면서, 신즉물주의를 특히 인플레이션 말기인 1923, 24년과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사이에 속하는 '안정'기의 '현대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범주'로 정의. 그에 의하면 신즉물주의란 당시 미술, 경제, 정치 및 철학에서도 지배적으로 추구되던 가치로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물질적 고통 후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된 시민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의미. 이러한 비판은 미국의 정확주의와 지방주의 미술에도 적용 가능.

1920-30년대 유행한 형상적 미술의 공통적 특징을 Wieland Schmied는 다음과 같이 요약: 첫째, 표현주의 회화의 동요하는 듯한 넓은 면들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을 소묘적으로 정확히 그림, 둘째, 시가의 냉정함과 날카로움,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비감상적인 사물 관찰방식, 셋째,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무의미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중요시되지 않던 것들로 향한 관심 및 '추한 것'을 꺼리지 않는 점, 넷째, 대상의 고립, 다섯째, 정적인 것이 선호됨으로써 진공상태 같은 조용하고 빈 배경등장, 여섯째, 붓 자국을 없애므로써 그림이 개인의 필체와 무관하게 됨, 일곱째, 사물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태도 등.